

집단미술치료가 알코올중독 환자의 자아수용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강명희¹⁾ · 김남영²⁾ · 박미경²⁾ · 강경숙²⁾

남평미래병원 간호과장¹⁾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²⁾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알코올환자를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하여 자아수용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집단미술치료가 알코올중독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사용한 유사실험연구로, 전라남도에 소재한 일 정신병원의 알코올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 연구목적에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하여 실험군 12명, 대조군 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과 프로그램 실시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4월 15일까지로 측정변수에 대한 사전조사, 총 14주동안의 실험처치 그리고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로 자아수용은 Phillips(1951)가 개발하고 최선남(200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자아수용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빈도, 백분율, χ^2 -test와 Mann-Whitney U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설검정은 Mann-Whitney U로 분석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는 성별, 나이, 결혼관계, 교육정도, 경제적인 상태를 보는 보험관계 및 알코올 교육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p>.05$),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종속변수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결과, 자아수용정도가 실험군 71.83점, 대조군 70.80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U=55.00, P=.741$). 자아존중감도 실험군 25.25점, 대조군 25.4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U=56.00, p=.791$), 실험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수용정도와 자아존중감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제 1가설 : “집단미술치료를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다 자아수용정도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후 실험군은 자아수용정도가 77.58점으로 실험전보다 5.75점이 높아졌으나 대조군은 실험후 67.00점으로 실험전보다 3.80점 하락하는 점수를 보였다. 또한 Mann-Whitney U로 분석한 결과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U=33.50, p=.040$),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4) 제 2가설 : “집단미술치료를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후 실험군은 자아존중감이 27점으로 실험전보다 1.75점이 높아졌으나, 대조군은 실험후 24점으로 실험전보다 1.40점이 하락하는 점수를 보였다. 또한 Mann-Whitney U로 분석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U=28.50, p=.016$),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 환자의 자아수용정도와 자아존중감에 효과적인 중재방법임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알코올 환자의 자아수용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법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집단미술치료의 적용기간을 보다 장기화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실험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는지 반복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으로 확연하게 규명하는데 필요한 모수를 표집하지 않았기에 더 충분하고 다양한 층의 대상자를 표집한 연구가 필요하다.